

唐代 書僧 晳光의 書藝와 書藝詩*

禹 在 鎬**

〈目 次〉

I. 서론	IV. 변광 서예에 대한 당 이후의
II. 書僧 晳光과 변광의 書藝	평가
III. 변광 서예를 읊은 唐代 서예시	V. 결론

I. 서론

唐代에는 불교의 성행에 따라 승려의 수가 많아졌고, 승려들의 寫經 행위가 보편화 되었던 까닭에 서승도 많았다. 이로 인해 문헌이나 비문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당대 사경승과 서승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당대에 명성을 날린 대표적인 서승으로 懷渾, 懷仁, 大雅, 行滿, 湛然, 辯才, 行敦, 知至, 澄觀, 遺則, 智隄, 懷素, 鑒眞, 獻上人, 道秀, 玄應, 建初, 高閑[閑], 晳[辯]光(廣利), 亞棲, 貫休(禪月), 曇域, 夢龜 등을 들 수 있다.¹⁾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본고는 2019년 6월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年度 春季 4개學會 聯合學術大會’에서 발표한 〈唐代 書僧 晳光의 書藝와 書藝詩〉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1)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江蘇教育出版社 2014.6 4刷) 209-221쪽, 周小儒·張揚, 《中國歷代僧侶書法》(山東畫報出版社, 2011) 36-71쪽 및 田光烈, 《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 頂淵文化事業有限

이들 당대 서승을 현전하는 시와 서예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懷素나 高閑처럼 본인이 창작한 서예작품과 당대 및 당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현전하는 서승이 있는가 하면, 淸光이나 貫休처럼 본인 필적의 서예작품은 현전하지 않지만 《全唐詩》에 당대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은 남아 있는 서승도 있다. 이들 서승 중에는 관휴처럼 본인이 창작한 시가 현전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본인이 창작한 시가도 서예 작품도 현전하지 않고, 《全唐詩》 등에 수록된 시문에 이름이나 서예 작품명 등이 남아 있는 서승이 가장 많다.

이중 본인의 서예 필적이 현전하면서 후대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전해지는 대표적인 서승으로는 懷素와 高閑을 들 수 있으며, 이 둘 외에 당대를 비롯하여 역대 문인들의 시가와 평론이 懷素와 高閑 다음으로 많이 전해지는 서승으로 淸光을 들 수 있다. 당대 서승의 서예를 읊은 당시 중에는 회소 다음으로 변광의 서예를 읊은 시가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서예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唐末에 활동했던 서승 변광의 서예와 이를 평하거나 노래한 당대의 시문 및 당 이후 역대 문인들의 변광 서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회소의 서예와 懷素 草書歌 및 고한의 서예와 고한 서예를 논한 역대 제가의 평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해본 적이 있으므로,²⁾ 본고는 당대 서승의 서예와 서예시에 관한 세 번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II. 서승 변광과 변광의 書藝

淸光은 역대 문헌에서 佛名(法名)의 한자가 淸光 혹은 淸光, 辯光으로

公司, 民國82.3) 176-196쪽 참조.

- 2) 필자는 이미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中國語文學》 第7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8.4)와 〈唐代 書僧 高閑의 書藝와 역대의 평가〉(《中國語文學》 第82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9.12)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본고는 당대 서승의 서예와 서예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작업이다.

도 표기되며, 달리 廣利라고 칭해지기도 하였다.³⁾ 변광의 속성은 吳氏이고 字는 登封이며, 강남 浙江의 永嘉 사람으로 당나라 太子左庶子 吳兢(670~749, 《貞觀政要》의 저자)의 후손이었다. 어려서 집을 떠나 陶山寺에서 삭발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시를 잘 지었고 글씨를 잘 썼는데, 시에는 옛 곡조의 시가 많았고 글씨는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다. 陸希聲이 豫章에 귀양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배알하고 五指撥燈訣⁴⁾을 전수받았다. 서체가 굳세고 강건하였고, 팔뚝을 돌려서 붓을 거두었으니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五臺山 開元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昭宗(867~904: 재위 888~904년)이 그의 명성을 듣고 불러 황제의 어담 앞에서 글씨를 쓰게 하고는 紫方袍를 하사하였다.⁵⁾

- 3) 이하 晷光으로만 표기한다. 《御定佩文齋書畫譜》와 《六藝之一錄》 및 《佛法與書法》 등 여러 전적에서는 廣利와 晷光을 다른 인물로 파악하여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宋高僧傳》(贊寧 撰, 全二冊, 中華書局, 1987.8) 권30 〈雜科聲德篇〉 第12에서는 晷光의 별호를 廣利라고 하여 동일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廣利와 晷光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宋高僧傳》을 따라 동일 인물로 상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4) 五指撥燈訣이란 붓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용필법이다. 撥燈法이란 書寫 기교와 관련한 서예 이론 중의 하나인데, 붓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등불의 심지를 돌우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집필과 운필을 종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唐代 咸通 연간(860~874) 林蘊이 지은 〈撥燈序〉라는 서예 이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 5) 《宋高僧傳》, 위의 책, 권30 〈雜科聲德篇〉 第12, “字登封, 姓吳氏, 永嘉人. 唐史官左庶子兢之裔孫也. 幼捨家於陶山寺剃度. …… 多作古調詩, 苦僻寡味, 得句時有得色. 長於草隸, 聞陸希聲謫宦於豫章, 光往謁之. …… 而授其五指撥燈訣. 光書體當見適健, 轉腕回筆, 非常[人]所知. 乃西上, 昭宗詔對御榻前書, 賜紫方袍. 後謁華帥韓建, 薦號曰廣利. …… 乃歸甬東終焉.” 《浙江通志》 권 201과 《御定佩文齋書畫譜》 권30에 실린 내용도 위의 《宋高僧傳》에 실린 이상의 기록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羅瀾 등이 편찬한 南宋의 地方志 《寶慶四明志》 권4, 袁桷 등이 편찬한 元의 地方志 《延祐四明志》 권16 등에도 보인다. 이하 원전 텍스트는 王伯敏 등이 主編한 《書學集成》(全三冊, 河北美術出版社, 2002.6)과 潘運告가 主編한 《宋代書論》, 《元代書論》, 《明代書論》, 《清前期書論》, 《晚清書論》(中國書畫論叢書, 湖北美術出版社, 2006.11, 2版 등) 등을 참고하여

변광이 생존했던 당말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혼란하여 변란이 이어졌을 때였다. 당시 당나라는 龐勛의 난, 黃巢의 난을 거치며 소종이 재위할 888년 무렵에는 각 지방 절도사들에 의해 국가가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국정 역시 통제불능의 상태로 환관 세력이 마음대로 농단하였다. 수도인 長安이 침공 받았을 때도 昭宗과 함께 華州로 피난을 갔지만 승려의 신분으로 의지할 곳 없는 외롭고 위험한 처지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시 化州를 떠났다. 이후 정주할 곳 없는 탁발승의 신분으로 潼關에서부터 吳越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한때는 吳越王 錢鏐에게 의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류에게도 크게 환심을 사지 못하고 다시 고향 근처로 와 明州(오늘날의 寧波)의 國寧寺에 기거하면서 後唐 天成(926~930년) 말년까지 머물렀다. 甬東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쳤는데, 생졸연대는 분명하지 않다.⁶⁾

宋 陳思의 《書小史》 권10, 元末明初 陶宗儀의 《書史會要》 권5와 《說郛》 권117下, 淸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333 등에서도 기본적으로는 《宋高僧傳》과 《宣和書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변광은 시와 초서에 뛰어났고, 육희성에게서 서예의 비결인 五指撥燈訣을 전수받아 글씨가 크게 도약하였으며, 吳融과 崔道融, 羅隱과 司空圖, 그리고 貫休 등이 변광 초서를 칭송한 시를 지었다. 그 당시에 변광의 초서를 예찬하며 시로 노래한 문인들이 50명이나 되어 그들이 창작한 시문만 50편이 넘었으며, 이들이 노래한 서예시를 문집으로 편찬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⁷⁾ 변광의 시와 서예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宋史》 권209 〈藝文志〉와 《宋高僧傳》 권30, 그리고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籤》 권33, 청대 《浙江通志》 권248에는 淸光의 시집이 1권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변광은 시에도 뛰어나 옛 곡조의 시가 많았다고 하였다.⁸⁾

대조하였고, 원전을 찾아 대조하지 못한 경우에는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을 검색하여 관련 원전류를 참고하였다.

- 6) 周小儒·張揚, 《中國歷代僧侶書法》(山東畫報出版社, 2011), 36-37쪽.
- 7) 《宋高僧傳》, 위의 책, “有文集, 知音者所貴. 出筆法弟子從瓌, 溫州僧正智琮, 皆得墨訣. 有朝賢贈歌詩, 吳內翰融, 羅江東隱等五十家, 僅成一集.”
- 8) 변광의 시문집, 그리고 당대 문인들이 변광의 서예를 노래했던 시집이 현재까

변광의 서예 필적은 현재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기록상으로는 《宣和書譜》 권19에 변광의 초서 〈贈登第等詩〉와 〈千文〉 두 점이 御府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 것을 필두로,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籤》 권33과 청 孫岳頒의 《御定佩文齋書畫譜》 권92, 청 卞永譽의 《式古堂書畫彙考》 권4, 청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377 등에도 변광의 동일한 초서 작품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송 이후 명청대까지는 변광의 초서 진적 두 점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광 생애가 혼란했던 당말과 겹치다보니 그의 작품이 별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송 이후 명청대까지 남아 있던 두 점의 초서 진적도 망실된 듯하다. 다만 당대의 몇몇 문인들은 변광의 서예를 시로 노래하였고, 송 이후 여러 평자들은 변광 서예에 대한 평을 여러 가지로 남겨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변광 서예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소나마 전해 주고 있다.

Ⅲ. 변광 서예를 읊은 당대 서예시

먼저 《全唐詩》에 수록된 서승 변광의 서예를 읊고 있거나 변광과 관련 있는 시를 열거해보면 羅隱의 〈변광대사를 전송하며: 대사는 초서로 황제의 하명에 응하였다(送晉光大師: 師以草書應制)〉(卷663-29), 吳融의 〈광리대사가 동쪽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廣利大師東歸)〉(卷685-9, 《唐英歌集》 권上)⁹⁾와 〈변광 스님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晉光上人草書歌)〉(卷687-45) 및 〈광리대사에게 드리는 노래(贈廣利大師歌)〉(卷687-47, 《唐英歌集》 권下), 陸希聲의 〈변광 스님에게 부쳐 드림(寄晉光上人)〉(卷

지 남아있다면 그가 지은 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시문집은 현재 전하지 않고, 변광의 서예를 노래한 당대 문인들의 시 역시 몇 수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집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9) 이 시의 시제는 宋 岳珂의 《寶真齋法書贊》 권6에서처럼 〈광리대사가 강동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廣利大師歸江東)〉로 되어 있기도 하다.

689-21),¹⁰⁾ 崔道融의 〈산에 살며 병으로 누웠는데 광리대사가 방문해준다(山居臥疾廣利大師見訪)〉(卷714-50), 貫休의 〈변광대사의 초서 노래(擘光大師草書歌)〉(卷837-35) 등 6수를 들 수 있다.

이 시들 외에 《宣和書譜》 권9에는 行書로 쓴 司空圖의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擘光草書歌)〉¹¹⁾와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시(贈擘光草書詩)〉가 소장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籤》 권33, 《御定佩文齋書畫譜》 권29와 권91, 《六藝之一錄》 권332에서도 역시 행서로 쓴 司空圖의 시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擘光草書歌)〉와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시(贈擘光草書詩)〉가 있다고 기록한 외에도,¹²⁾ 행서나 초서로 필사된 陸扈의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擘光草書歌)〉, 唐彥謙의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擘光草聖歌)〉, 李璣의 〈변광을 전송하는 시(送擘光詩)〉, 崔遠의 〈변광을 전송하는 시(送擘光詩)〉, 韓偓의 〈변광 스님을 전송하는 시(送擘光上人詩)〉, 張顛의 〈변광에게 드리는 시(贈擘光詩)〉, 盧汝弼의 〈변광에게 드리는 시(贈擘光詩)〉 등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 시들은 시제만 남아 있고 원문은 전하지 않는다.

시는 아니지만 이외에도 《宣和書譜》 권10에는 盧知猷의 行書 작품 〈변광을 전송하는 서문(送擘光序)〉, 《御定佩文齋書畫譜》 권91에 薛貽矩의 正書 작품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의 서문(贈擘光草書序)〉과 楊鉅의 正書 작품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의 서문(贈擘光草書序)〉이 소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장들 역시 현재 제목만 전하고 원문은 전하지 않는 데, 아마도 이 문장들은 변광과 그의 서예를 예찬하며 노래한 50여 문인

10) 《全唐詩》에 수록된 陸希聲과 吳融 시의 시제는 《唐音癸籤》 권33 등 기타 다른 전적에 수록된 시와 동일한 시이지만 시제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

11) 《六藝之一錄》 권290에 司空圖의 시로 실려 있는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擘光草書歌)〉는 貫休의 〈변광대사의 초서 노래(擘光大師草書歌)〉(권837-35)와 같은 시이다.

12) 사공도의 시는 시제만 수록되어 있거나, 시의 원문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휴의 시를 잘못 수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司空表聖文集》에도 변광 관련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들의 서예시를 엮은 문집의 서문인 듯하다. 또 《書苑菁華》권18과 권20에는 각각 司空圖의 〈초서승 변광이 월지방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草書髡光歸越)〉라는 산문과 吳融의 〈변광 스님의 초서를 보며 하지장을 생각하며(覽髡光上人草書想賀監賦)〉라는 賦가 수록되어 있다.¹³⁾

본고에서는 변광 초서를 노래한 당대 서예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다음은 변광 초서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노래한 吳融의 〈변광 스님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髡光上人草書歌)〉(卷687-45)이다.

전서는 소박하고,
 예서는 범속한데,
 초서의 귀함은 구속되지 않음에 있네.
 강남의 한 스님 법명이 변광인데,
 자주빛 붓 한 자루 미친 듯 다룬다네.
 글쓰기 좋은 벽 있으면 붓 휘둘러,
 순식간 이미 너덧 줄 써내려가네.
 굽은 획은 갈고리 같고,
 둥운 획은 활과 같으며,
 기운 획은 손바닥 같고,
 도는 획은 소용돌이 같네.
 또 하나라 우왕이 회수 강신 가둔 듯,
 파도 속에서 손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
 또 주해가 진비를 철퇴로 쳐 죽이는 듯,
 소매에서 팔뚝을 뽑아 올리는 것 같네.
 때로 구불구불 부드럽게 휘돌아,
 가을 구름 한 무더기 허공에 뿌려진 듯하고,
 때로 여윈 것이 높고도 가팔라,
 백 척 마른 소나무 그루터기 드러나는 듯하네.
 홀연히 날아오르니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하고,
 우르릉 벼락소리에 용과 뱀이 살아나는 듯하네.

13) 이상의 문장들은 《式古堂書畫彙考》 권4, 《六藝之一錄》 권294와 권335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전적들마다 원문에 있어 약간의 출입이 있다.

회계 땅 하지장 노인이 옛날 전했던 글씨인데,
 듣자하니 능한 이는 또 장육만이 있었다 하네.
 스님께서 이룬 공적 마땅히 낮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리저리 나부끼며 바닷가 떠도는가.
 천자 계신 경사로 가시면 딱 들어맞아서,
 고운 흰 비단 두르고 잘라 글씨 쓰실 터인데.
 이를 알거나 모르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반드시 일자천금의 가치 있다고 말하겠네.¹⁴⁾

당말 시인인 吳融은 고향이 浙江의 越州 山陰이므로 역시 浙江의 永嘉 사람인 變광과는 같은 강남 사람이라 할 수 있다. 昭宗 龍紀 원년(889년)에 진사가 되어 侍御史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戶部侍郎에 제수되었고 翰林承旨로 생을 마감하였으니 變광과는 생몰년대가 대체로 중복된다.

시인은 이 시에서 구속됨이 없는 미친 듯한 광초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전반부에서는 많은 비유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變광 초서의 뛰어난 묘사하고 있다. 먼저 “우임금이 회수의 강신을 가두다(夏禹鎖淮神)”라는 구절에서는 禹임금이 치수를 할 때 세 번이나 桐柏山에 가서 淮水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수신 無支奇를 붙잡고 신하 庚辰에게 그를 억제하라고 명하여 龜山의 기슭에 잡아두자 회수가 이에 안정되게 흘렀다는 고사¹⁵⁾와 “주해가 진비를 격살하다(朱亥錘晉鄙)”라는 구절에서는 전국시대 때 식객

14) 《全唐詩》 卷687 〈贈晉光上人草書歌〉 “篆書朴，隸書俗，草聖貴在無羈束。江南有僧晉光，紫毫一管能顛狂。人家好壁試揮拂，瞬目已流三五行。摘如鉤，挑如斨，斜如掌，回如醉。又如夏禹鎖淮神，波底出來手正拔。又如朱亥錘晉鄙，袖中擡起腕欲脫。有時軟縈盈，一穗秋雲曳空闊。有時瘦嶮巖，百尺枯松露槎枿。忽然飛動更驚人，一聲霹靂龍蛇活。稽山賀老昔所傳，又聞能者惟張顛。上人致功應不下，其奈飄飄滄海邊。可中一入天子國，絡素裁縑灑毫墨。不繫知之與不知，須言一字千金值。” 이 시는 줄고, 〈唐代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中國語文學》 第79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8.12) 14-16쪽에서도 이미 인용한 적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전 번역을 조금 수정 보완하였다.

15) 이 고사는 《輿地廣記》 권20에 보이며, 《唐國史補》 卷上 〈淮水無支奇〉 조목에도 나오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을 꺼리지 않았던 魏나라 공자 信陵君은 趙나라를 구원하고자 위나라 사람으로 용맹과 힘이 있었던 식객 朱亥로 하여금 사십 근짜리 철퇴를 소매에 숨겨 장군 普鄙를 쳐서 죽이고 군대를 빼앗아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다는 고사¹⁶⁾를 사용하여 변광의 초서가 마치 자유자재로 구사되어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어서 시인은 허공에 뿌려진 한 무더기 가을 구름, 백 척 마른 소나무 그루터기, 살아 있는 용과 뱀 등에 비유하며 부드럽게 휘도는 변광 광초의 자유로운 필획을 노래하였다.

당말의 초서는 狂草의 유행과 여운을 계승하여 名家가 적지 않았는데, 변광 역시 그 명가 중의 한 명이었다. 草聖이란 본래 초서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에 대한 존칭이지만, 이 시에서는 草書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변광은 글씨를 잘 써서 元末明初의 陶宗儀는 “비록 지영, 회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하지만, 또한 스스로 충분히 일가의 법을 이루어 당시에 일컬어지는 바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⁷⁾ 일찍이 서예로 황제가 하사하는 자방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그의 글씨는 당시에 매우 진귀하여 글자 한 자가 천금의 가치가 있게 되었는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는 이러한 사연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酬贈詩는 과장되어 수식으로 일관한 일반적인 應酬 작품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¹⁸⁾

이 시는 그 기세가 마치 변광의 초서 작품과 같아 사람을 놀라게 하고, 진지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가장 뛰어난 당대

16) 이 고사는 《史記》 권77, 〈信陵君列傳〉 제17에 나온다.

17) 陶宗儀, 《書史會要》 권5 “雖未足以與智永懷素方駕, 然亦自足一家法, 爲時所稱.” 이와 같은 내용은 《宣和書譜》 卷19와 《六藝之一錄》 卷333 〈釋髒光〉 조목에도 동시에 실려 있다.

18) 吳融에게는 〈승에게 부쳐드리다(寄僧)〉(卷684-13)는 시가 있는데,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柳拂池光一點清, 紫方袍袖杖藜行. 偶傳新句來中禁, 誰把閑書寄上卿. 錫倚山根重蘚破, 棋敲石面碎云生. 應憐正視淮王詔, 不識東林物外情.” 이 시를 부쳐드린 승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시에서 “자방포 소매에 명아주 지팡이 짚고 길을 간다. 우연히 지은 새로운 시구 궁중으로 전해오고, 여유로운 글씨를 누가 조정 대신에게 부쳤는가. …”라는 내용으로 보아 변광 스님에게 부쳐준 시일 가능성이 높다.

의 초서가 賀知章과 張旭을 인용하면서 변광이 이들을 계승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한결을 더 나아가 “스님께서 공을 이룬 것은 응당 낮지 않다(上人致功應不下)”고 이들 초서 대가와 비교하면서 변광 초서의 빼어남을 고무적으로 평가하였다. 시인 오용은 당대 초기의 초서 대가인 하지장과는 동향 사람(오용은 山陰, 하지장은 會稽로 같은 절강성의 가까운 곳임)으로 초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대가를 하지장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변광의 초서를 앞에 두고는 하지장을 떠올리면서 <변광상인의 초서를 보며 하지장을 생각하다(覽矚光上人草書想賀監賦)>라는 賦를 지어 두 초서 대가를 연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¹⁹⁾

오용은 또 광리대사 변광이 고향인 강남으로 귀향하자 송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송별시 <동쪽으로 돌아가는 광리대사를 전송하며(送廣利大師東歸)>와 <광리대사에게 드리는 노래(贈廣利大師歌)>라는 시 2수도 남기고 있다. 앞의 시는 송별시여서 그런지 이별의 아쉬움이 주가 되고 서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둘째 시 <광리대사에게 드리는 노래>는 장편의 歌行體 시인데, 변광 스님의 심성과 시가와 서예에 대해 두루 두루 노래하고 있다. 장편의 가행체이므로 여기서는 변광의 서예와 시를 직접적으로

19) <覽矚光上人草書想賀監賦>는 다음과 같다. “賀秘監東歸會稽，霧隱霞棲。派鏡湖水作沼，鑿石竇峰爲梯。嘆非雌雉，畏其雄鷄。東臯子無鄉不醉，漆園吏有物皆齊。孔子悠哉，顧龜印以尋解。翟公何爾，羅雀門而更題。一日豁層軒，幔素壁，攘袂高下，飛文絡繹。風雨隨生，魚龍互擲。濤奔浪走，中秋逢犯斗之槎。月上雲開，半夜見隕天之石。狂兇無群，離鴻一隻。橫魯陽揮去之戈，樹呂布射來之戟。援毫既罷，悅目忘疲。滿堂生金石之寶，出世掩鬼神之奇。日落簾捲，山掩枕欹。雲情自遠，鶴態難羈。但將健筆以爲適，豈待閑人之見知。逸矣清風，茲焉仰止。今觀上士之殊莛，可繼伊人之逸軌。當時芸閣，猶於高貴浮雲。此日桑門，得不塵埃脫屣。”(《全唐文》(全五冊，董誥等編，上海古籍出版社，1995，3刷) 권820，3822 쪽. 이 부에서는 하지장 초서의 뛰어난 점을 회상하면서 변광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마지막 부분 “오늘날 빼어난 선비들의 남다른 기예를 보노라면 이분의 빼어난 자취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비서성에 계신 [비서감 하지장 이] 분께서도 부귀를 뜯구름과 같이 보았으니, 오늘날 불문에 계신 [광리대사 변광 스님 이] 분께서 어찌 진애처럼 가뻐이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내용만 해당될 뿐이다. 중간 부분에서 하지장의 서예에 대한 언급이 바로 변광 초서의 빼어남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옳고 있는 부분만을 인용해본다.

.....

삼십 년 전에 처음 대사를 알았을 때,
 붓을 쥐고 초서 배우는 것 보았었지.
 흩어지는 구름 일몰의 해처럼 온갖 형상이,
 손을 따라 변화하면서 허공중에 생겨나네.
 바다 북쪽 하늘 남쪽에서 여러 번 이별함에,
 진적 글씨 볼 때마다 더욱 기이하고 절묘하네.
 근래에 지은 시가를 함께 풀어주는데,
 명쾌한 언어에 기골이 장대하네.
 강하기가 백 번 단련한 강철처럼,
 곧고 특이해 구부릴 수 없고,
 또 빠르게 달리는 천리마처럼,
 고삐 벗고 나는 듯 사라지네.
 다듬고 깎지 않아 좋은 것이,
 종횡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네.
 예전에 나에게 보여준 십여 편은,
 대부분 강남 풍월을 읊은 것이었네.
 이에 알겠네, 본성은 하늘에서 부여받고,
 습성이 사람이 된다는 것.

..... 20)

이 시를 통해 변광 초서는 수련을 하는 삼십 여년 동안 많은 변화와 진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변광의 시적 재능과 풍격 등에 대해서

20) 《全唐詩》 卷687 〈贈廣利大師歌〉 “..... 三十年前識師初，正見把筆學草書。崩雲落日千萬狀，隨手變化生空虛。海北天南幾回別，每見書跡轉奇絕。近來兼解作歌詩，言語明快有氣骨。堅如百煉鋼，挺特不可屈。又如千里馬，脫韁飛滅沒。好是不雕刻，縱橫沖口發。昨來示我十餘篇，詠殺江南風與月。乃知性是天，習是人。.....” 이 시는 줄고, 〈唐代 書僧의 書藝와 書藝詩〉(《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9) 100-101쪽에서도 이미 인용한 적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전에 인용한 시의 번역과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다.

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변광 시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시와 서에 모두 뛰어났던 변광은 당대에 이미 시승과 서승의 영예를 모두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陸希聲의 〈변광 스님에게 부쳐드림(寄磻光上人)〉이라는 짧은 절구시에 서는 변광의 서예와 변광과의 인연에 대해 간략하게 읊고 있다.

붓 아래 마치 용과 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천지에서 비와 번개가 한 순간에 변하는 것 같네.
편지 써서 부치네, 옛날 손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강가에서 숨이불 빨던 사람 응당 잊지 않았다고.²¹⁾

陸希聲은 晚唐의 蘇州 사람으로 박학하였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일찍이 右拾遺와 歙州刺史에 임명되었고, 昭宗 때는 給事申이 되었다가, 戶部侍郎 겸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제배되었다. 唐初의 저명한 서예가 陸柬之(585~638)가 그의 六代祖였기에, 집안 대대로 서법을 전승하여, 육희성은 일찍이 撥燈法을 변광에게 전하였다고 한다.

이 시는 짧지만 역대의 많은 전적에서는 이 시와 관련하여 육희성과 변광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는 計有功의 《唐詩記事》 권48에 수록된 내용을 옮겨본다. “옛날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중에 필법을 체득한 자가 드물었다. 육희성이 이를 체득하여 다섯 자를 얻었으니, 擘·押·鈎·格·抵였다. 쌍구법으로 붓을 사용하면 정확이 굳세고 힘이 있어서 그 묘체를 다할 수 있었으니, 이를 오지발등법이라 칭하였다. 육희성은 스스로 옛날 왕희지와 왕헌지 이왕이 모두 이 법을 전수하였으며, 이양병 역시 이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육희성은 이를 사문인 변광에게 전수해주었다. 변광은 장안에 와서 한림봉공이란 벼슬을 하였으나, 육희성은 오히려 관원이 없었으므로 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읊었다. ‘붓 아래

21) 《全唐詩》 卷689 〈寄磻光上人〉 “筆下龍蛇似有神，天池雷雨變逡巡。寄言昔日不龜手，應念江頭泝滌人。”

용과 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천지에 내리는 비와 번개가 한 순간에 변하는 것 같네. 편지 써서 부치네, 옛날에 손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강가에서 숨이불 빨던 사람 응당 잊지 않았다고.’ 변광은 이 말에 느낀 바가 있어 육희성을 데려와 [고관들에게] 천거하였다. 육희성은 박학하였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소종 때 재상을 지냈다.”²²⁾

‘龍蛇’란 초서의 필획이 마치 용이 날아오르고 뱀이 춤추는 것처럼 생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뜻으로 필획의 생생함과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비유이기도 하다. 상상의 바다인 ‘天池’, 손이 터서 거북 꺾질처럼 갈라지다는 뜻의 ‘龜手’, 물가에서 숨이불을 세탁하라는 뜻의 ‘泚泚’은 모두 《莊子·逍遙游》에 나오는 비유적인 寓言 고사이다.²³⁾ 이 詩話 및 수많은 전

22) 計有功, 《唐詩記事》(全6冊, 王雲五 主編,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1968) 권48, 601쪽 “古之善書, 鮮有得筆法者. 希聲得之, 凡五字: 擱押鉤格抵, 用筆雙鈎, 則點畫遒勁而盡妙矣, 謂之撥鐙法. 希聲自言昔二王皆傳此法, 至陽水亦得之. 希聲以授沙門晉光. 晉光入長安爲翰林供奉, 希聲猶未達, 以詩寄晉光云, 筆下龍蛇似有神, 天池雷雨變凌巡, 寄言昔日不龜手, 應念江頭泚泚人. 晉光感其言, 引薦希聲[於貴倖]. 希聲博學善屬文, 相昭宗.”

23) 《莊子·逍遙游》(김창환 옮김, 을유문화사, 2010.3, 42-44쪽 참고)에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숨이불 빠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다. 어느 나그네가 이 말을 듣고 그 처방을 백 금에 사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온 가족을 모아 놓고 의논을 하였다. ‘나는 대대로 숨이불 빠는 일을 하였으나, 그 수입은 불과 몇 푼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하루아침에 백 금을 받고 기술을 팔게 되었으니 약의 처방을 그에게 파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말하였다. 나그네가 이 처방을 얻은 후에 오왕에게 유세를 하였다. 그때 마침 월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오왕은 그를 장군으로 삼았고, 겨울에 월나라 군사와 수전을 하여 월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오왕은 땅을 떼어주며 그를 후로 봉하였다. 손을 트지 않게 할 수 있는 비법은 한 가지이지만, 어떤 사람은 후에 봉해졌고, 어떤 사람은 숨이불 빠는 일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宋人有善爲不龜手之藥者, 世世以泚泚統爲事. 客聞之, 請買其方以百金. 聚族而謀曰: ‘我世世爲泚泚統, 不過數金, 今一朝而鬻技百金, 請與之.’ 客得之, 以說吳王. 越有難, 吳王使之將, 冬與越人水戰, 大敗越人, 裂地而封之. 能不龜手, 一也. 或以封, 或不免於泚泚統, 則所用之異也)”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육희성은 이러한 장자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활용하여, 변광에게 오지발등법을 전해주었던 자신은 관운이 없으니, 자방포도 하사받았던 그대가 황제에게 추천해달라는 본인의 뜻을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적 등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변광대사는 스승과 제자간의 정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것 같다. 시화에 전해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변광은 본성과 인품이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술적 성취는 이루었지만 은혜를 저버려 스승을 잊어버리거나, 영달한 후에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리거나, 스승을 폄하하는 사람과는 뉘뉘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광의 인품과 초서는 다음 貫休의 〈변광대사의 초서 노래(擘光大師草書歌)〉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다.

눈이 못 봉우리 짓누르는 듯 힘든 생활 속에서,
 곤궁함 비록 많아도 여전히 격렬하고 장대하네.
 빼어난 대사의 자취 보니 두 가지 다 마땅한데,
 고적의 가행체처럼 이백의 시만큼 뛰어나네.
 바다 위 놀란 파도와 맹렬히 타는 산불인 듯,
 미친 듯 연기 피어오르고 사초가 드러나네.
 강의 누각에서 일찍이 떨어지는 별똥별 보고,
 시험 삼아 몇 번이나 장군의 대포를 쏘았네.
 달리 배고픈 독수리가 절벽을 스쳐 나는 듯,
 기어 오르는 검은 원숭이 더 힘이 나는 듯.
 또 오 지방 소²⁴⁾가 빨 같고 오는 듯 보이고,
 휘두른 창과 둥근 칼이 처음으로 부딪친 듯하네.
 문장 애호하시는 천자께서 친히 붓을 잡으시고,
 황제의 글씨 본디 많지만 옥안까지 미뤄주셨네.
 새벽에 어전을 열어 벽에 글씨 쓰게 하시고,
 쓰기 마치자 친히 자춧빛가사 내려 총애하시네.
 승려가 시가를 애호하면 스스로 움츠려들고,
 승려가 그림을 좋아하면 또한 구속됨 많다네.
 대사는 초서 대가이면서 기예 더욱 고상함에도,
 산속의 샘물 한 움큼 움켜쥐니 마음 흡족하네.²⁵⁾

24) ‘오지방 소’로 번역한 ‘오우(吳牛)’는 ‘오중(吳中)’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오중은 지금의 강소성 오현으로, 춘추시대 때 오나라의 수도였다.

속성이 姜氏이고, 자가 德隱 혹은 德遠이며, 婺州의 蘭溪 사람인 貫休(832~912)는 羅漢圖를 잘 그렸으며, 시도 잘 지었고, 篆隸草에 모두 빼어나 이미 詩書畫 三絶의 경지를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예에서도 일가를 이루어 사람들은 貫休의 글씨를 칭찬하여 ‘姜體’라고 칭하기도 하였고, 그의 서예 작품 <草書千字>가 현전하고 있다. 五代 때 吳越王 錢鏐에게 중임된 적이 있으며, 후에 前蜀을 세워 스스로 황제라 칭했던 王建에게는 특별한 예로 후대를 받아 ‘禪月大師’라는 호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貫休에게는 “물병과 바리때 하나씩 지니고 점점 늙어가는데, 만 줄기 강과 천 산을 얻으려 특별히 여기 왔네.(一瓶一鉢垂垂老, 萬水千山得得來.)”라는 시구²⁶⁾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得得和尚이라고도 칭하였다.

변광의 초서를 보고 지은 貫休의 이 시는²⁷⁾ 초서 자체보다는 변광의 인품과 행적을 칭찬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글씨는 마음의 그림

25) 《全唐詩》 卷837 <晉光大師草書歌> “雪壓千峰橫枕上, 窮困雖多還激壯. 看師逸迹兩相宜, 高適歌行李白詩. 海上驚驅山猛燒, 吹斷狂烟著沙草. 江樓曾見落星石, 幾回試發將軍炮. 別有寒雕掠絕壁, 提上玄猿更生力. 又見吳牛磨角來, 舞槩盤刀初觸擊. 好文天子揮宸翰, 御制本多推玉案. 晨開水殿教題壁, 題罷紫衣親寵錫. 僧家愛詩自拘束, 僧家愛畫亦局促. 唯師草聖藝偏高, 一搦山泉心便足.” 《全唐詩》 권634에는 司空圖의 <贈晉光> 시의 殘句로 “看師逸迹兩師宜, 高適歌行李白詩.”를 수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 시를 貫休의 시로 소개한 전적도 있고, 다른 연구서(李靜月, <唐代書詒的書法史料價值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년, 58쪽)에서는 사공도의 시로 수록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듯하나, 본고에서는 일단 貫休의 시로 소개한다. 이 시 역시 좋고, <唐代書僧의 書藝와 書藝詩>(《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9) 103-104쪽에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번역과 해설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용하였다.

26) 이는 貫休의 <속마음을 펼쳐내 축의 황제(王建)에게 바치다(陳情獻蜀皇帝)> (《全唐詩》 권835-24)에 나오는 시구이다.

27) 貫休는 시를 잘 지어 만당 오대 때 주요한 詩僧 중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시문집은 처음에 《西岳集》이라 이름 하였으나, 貫休가 죽은 후 그의 문인曇域이 30권으로 편찬하여 《禪月集》이라 제목하였다. 본고에서 인용한 貫休의 이 시는 《全唐詩》 권837과 《禪月集》 권26에 모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공도의 시가 아니고 貫休의 시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다(書者心畫也)²⁸⁾라거나,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書者, 如也)”²⁹⁾는 말처럼, 글씨는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와 같아서 고상한 인품을 지니고 있어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관휴는 이 시에서, 변광이 비록 곤궁하였지만 글씨는 표일하고 호방하여 결코 초라하거나 곤궁한 모습이 없었고, 승려였지만 작품은 오히려 예법에 얽매임 없이 자연스러웠고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줏빛 가사’라는 뜻의 ‘紫衣’는 스님이 입는 최상의 가사인데, 則天武后 때 《大雲經》 중역을 마친 法朗 스님 등 아홉 사람에게 모두 ‘자줏빛 가사’를 하사하였고, 승려에게 자의를 하사하는 전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昭宗은 御榻에서 글씨를 쓰게 하고 변광에게 자의를 내려주었는데, 황제로부터 紫衣를 하사받았다는 것은 승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다른 승려와 달리 이러한 영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변광이었지만, 스스로는 오히려 “산속의 샘물 한 움큼 움켜쥐니 마음 흡족하네(一掬山泉心便足)”라는 자연속의 초연한 생활을 여전히 달가워하였다.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는 것을 ‘掬’이라 하는데, 한 움큼 두 손으로 가득 쥘다고 ‘一掬’이라 하였으니, ‘샘물을 한 움큼 가득 움켜쥐다’는 표현 하나로 변광의 욕심 없는 고귀한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었던 변광은 물질적인 욕망이 없고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형용하였는데, 이는 승려인 변광의 인품과 지고한 정신을 잘 파악했던, 역시 같은 승려 신분이었던 관휴의 깊이 있고 빼어난 심미안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시제에서 변광이 언급된 시로 羅隱의 〈변광대사를 전송하며: 대사는 초서로 황제의 하명에 응하였다(送瞿光大師: 師以草書應制)〉(卷663-29, 《羅昭諫集》 권3)라는 시와 崔道融의 〈산에 살며 병으로 누웠는데 광리대사가 방문해준다(山居臥疾, 廣利大師見訪)〉(卷714-50)라는 시가 더 있지만, 이 시들은 송별시와 일상잡사를 읊은 시로 변광의 초서에 대한

28) 明 潘之淙의 《書法離鈎》 卷2 〈定心〉 등에 보임.

29) 唐 張彥遠의 《法書要錄》 卷4 등에 보임.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나온의 앞 시에서 “강건한 운필 궁구하여 구중궁궐에까지 전해졌네. 성스러운 군주께서 자의 하사하며 빼어난 기예를 아끼셨고, 신하들은 시문을 지어 고상한 자취 인정하였네.(健筆尋知達九重. 聖主賜衣憐絕藝, 侍臣攜藻許高踪.)”라고 읊은 부분만이 궁궐에 불려가 어탑에서 초서를 시전함으로써 소종에게 자의를 하사받은 일과 당대 문인들이 시를 지어 변광 초서를 칭송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으니 변광 서예와 그나마 연관된 내용이라 하겠다.

《宣和書譜》 권9,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籤》 권33, 《御定佩文齋書畫譜》 권29와 권91, 《六藝之一錄》 권332 등에서 언급한 행서 또는 초서 필사본 司空圖의 시와 陸扈, 唐彥謙, 李璣, 崔遠, 韓偓, 張顥, 盧汝弼 등의 시는 현재 전하지 않아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변광의 초서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 틀림없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당 오대에 지어진 위와 같은 몇 수의 시가들을 통해 본 변광의 초서를 종합해보면, 초서승인 懷素와 高閑의 광초 풍격을 이어 받아 당대 초서 대가인 賀知章과 張旭과 비교해도 크게 못하지 않은 정도였고, 글씨는 구속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으며 표일하고 호방 장대하여 결코 초라하거나 궁상맞은 모습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IV. 변광 서예에 대한 당 이후의 평가

먼저 송대의 蘇頌(1020~1101)은 “변광이 [서예란] 불교에서 말하는 心印과 같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입과 손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서예를 논하였는데, 이는 실로 서예를 아는 자이다. 그러나 당시에 이처럼 명성과 칭찬이 자자하면서도 유독 후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필적이 매우 적게 전하는 자가 어찌 당대에 글씨에 능했던 자 뿐이겠는가. 변광 무리처럼 과묵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여러 공들이 칭찬하는 말을 보면 일반적인 보

통의 승려는 아니었다.”고 변광의 서예에 대해 논하였다.³⁰⁾ 여러 공들이 칭찬한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인용한 羅隱, 吳融, 陸希聲, 貫休 등의 여러 시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만당의 혼란했던 시대적 상황과 요동치는 정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변광의 서예 진적이 후대에 많이 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없을 따름이다.

송대 이후 평자들의 변광 초서에 대한 기본 인식은 당대의 서승 중 초서로는 다섯 번째 안에 든다는 것이다. 송대 《宣和書譜》 권19에서는 당대 초서승의 초서를 비유적으로 평가한 劉涇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회소 초서는 옥에 비유할 수 있고, 변광 초서는 진주에, 고한 초서는 황금에, 관휴의 초서는 유리에, 아서의 초서는 수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상에서는 훌륭한 비유라고 여겼다.”³¹⁾ 초서에 가장 뛰어났던 당대 다섯 승려를 비교 나열하면서 변광 초서를 진주에 비유하였다. 이들 당대 초서승 다섯 명이 모두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과 남다른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명대 楊慎의 《論草書韻會》에서는 당대에 초서에 뛰어난 승려 9인을 열거하고 있는데, 회소와 고한, 변광 등을 앞에다 꼽고 있다.³²⁾ 당대에 명성

30) 《蘇魏公文集》 권72, 〈題送晷光序〉 “晷光論書法, 猶釋氏心印, 發於心源, 成於了悟, 非口手可傳, 此誠知書者. 然當時名稱如此, 而獨不聞於後世, 筆跡絕少傳者, 豈唐人能書者多, 如光輩湮沒無聞, 不知幾何人耶. 觀諸公稱譽之言, 蓋非尋常僧流也.” 변광의 서법에 대한 이 문장은 송대 魏了翁(1178~1237)의 《鶴山集》에서도 앞 절의 내용 “書法, 猶釋氏心印, 發於心源, 成於了悟, 非口手可傳.”을 인용하고 있고, 이 내용은 청대에 편찬된 《御定佩文齋書畫譜》 권6에도 〈唐釋送晷光論書法〉이란 제목으로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心印’은 禪宗에서 말하는 글이나 말로 나타낼 수 없는 內心의 깨달음을 이르고, ‘心源’은 모든 법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마음을 이르는 말이며, ‘了悟’란 진리를 환하게 깨닫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변광의 이 언급에서 송대에 이론화한 ‘書禪合一’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보기로 한다.

31) 《宣和書譜》 권19, “昔劉涇嘗作書話, 以懷素比玉, 晷光比珠, 高閑比金, 貫休比玻璃, 亞栖比水晶, 世以爲善.” 《宣和書譜》에 실린 劉涇의 이러한 비유는 송 이후 거의 대부분의 書論 전적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32) 明代 楊慎 《墨池環錄》 권3 “釋九人, 懷素懷仁高閑亞栖晷光景雲貫休夢龜文

을 날렸던 많은 서승 중, 송대 《宣和書譜》에 열거된 당대 서승 5인과 명대 楊慎이 《論草書韻會》에서 거론한 당대 서승 9인 중 이름이 중복되는 이는 懷素, 高閑, 亞棲, 髡光, 貫休 등 다섯이다. 당대와 이후 평자들은 당대의 많은 서승 가운데 변광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일가를 이룬 빼어난 초서가로 꼽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평가들은 변광 초서가 수당대의 초서승인 智永, 懷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때로는 高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宋代 葉夢得이 《避暑錄話》에서 글씨에 뛰어난 당대의 서승을 거론하면서 “당나라 때는 서예에 뛰어난 승려가 세 명 있었으니 지영, 회소, 고한이다.”라고 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영과 회소와 고한을 함께 열거하며 차례대로 이들의 뛰어난 점을 언급하였으나 변광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변광은 이들 세 서승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³⁾

이러한 점은 비록 변광이 초서에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영이나 회소와 나란히 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또한 스스로 일가의 법을 이루어 그 당시에 칭송되는 바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평한 명대 陶宗儀의 《書史會要》 권5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³⁴⁾ 또 명대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1에서도 장욱 회소의 초서를 고한 변광의 초서와 함께 평하면서 “고한의 초서는 다만 술집에나 걸어들 만하다. 변광의 초서는 더 보잘 것 없다.”고 하여 변광 초서는 장욱과 회소에는 훨씬 못 미치고, 심지어 고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 평한 것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³⁵⁾ 역시 명대 汪珂玉은 《珊瑚網》

楚也.” 이러한 내용은 청대 錢唐 학자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281에도 〈楊慎論草書韻會〉라는 문장으로 인용하고 있다.

33) 葉夢得, 《石林避暑錄話》, “唐僧能書者三人, 智永懷素高閑也.” 명대 張丑의 《清河書畫舫》 권3 上에서도 葉夢得의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34) 《書史會要》 권5, “雖未足與智永懷素方駕. 然亦自是一家法, 爲時所稱, 豈一朝一夕之力歟.”

35) 《清河書畫舫》 권1 下, “高閑而下, 但可懸之酒肆, 髡光尤可憎惡也.” 이 책에

권24에서 “장옥 회소 뒤에 변광 고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변광 초서를 장옥과 회소 초서의 아류 내지는 말류라고 변광 초서를 폄하하여 평하였다.³⁶⁾

이상 송대 이후 역대의 여러 평자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변광 초서는 수당대 초서승 智永, 懷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高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고향과 亞栖 정도에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대 초서승을 개관해보면, 변광 초서는 회소 초서와 같은 최상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고향이나 아서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몇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그나마 일가를 이룬 뛰어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소와 고향과 달리 송 이후에 서예시로 변광 초서를 칭송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변광 초서를 배우거나 본받았다는 후대의 서가나 화가들은 몇몇 존재한다. 송대 鄭謙은 초서에 있어서 변광 초서의 遺則을 지니고 있다거나,³⁷⁾ 궁정화가인 吳鎮이 변광 초서를 배웠다고 한 기

서는 이 문장을 미불의 《山林集》에서 인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청대 錢唐 학자인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8에서는 송대 米芾의 《海嶽名言》에 수록된 내용으로 미불이 언급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六藝之一錄》 권300과 《式古堂書畫彙考》 권11에서 米元章의 《海嶽名言》에 실린 문장이라 하여 인용한 원문은 “草書不入晉人格，徒成下品。張顛俗子變亂古法，驚諸凡夫，自有識者，懷素少加平淡，稍到天成而時代壓之，不能高古。高閑而下，但可懸之酒肆，晝光尤可憎惡也。”로 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서예 전적에서도 이 문장을 미불의 말로 인용하고 있지만, 米芾의 《海嶽名言》뿐만 아니라, 미불의 다른 저작인 《寶章待訪錄》과 《書史》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미불의 《山林集》은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인용에 착오가 있었는지, 미불 저작의 원문이 실전되었는지는 좀 더 논구해보아야 할 듯하다. 이 문장은 이후 明 張丑의 《眞蹟日錄》 권2, 明 汪阿玉의 《珊瑚網》 권21, 明 王世貞의 《弇州四部稿》 권133과 《弇州四部續稿》 권166, 청대 서화 감정가인 刑部左侍郎 卞永譽의 《式古堂書畫彙考》 권11, 역시 청대 倪濤의 《六藝之一錄》 권145와 권300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36) 《珊瑚網》 권24 下, “旭素之後，不得不生晝光高閑。” 이러한 평은 《清河書畫舫》 권5 下, 《弇州四部稿》 권153, 《式古堂書畫彙考》 권2, 《六藝之一錄》 권295 등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37) 《書史會要》 권6 〈宋〉 “鄭謙，字本然，不知何許人。草書有晝光之遺則。”

록들이 보인다.³⁸⁾ 자가 仲珪이고 호가 梅花道人인 吳鎮은 특히 水墨山水에 뛰어났으며, 초서는 변광 초서를 배웠다고 평해지고 있다.³⁹⁾ 송대의 명화가인 오진의 초서가 변광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언급은 명대 중기의 문인 화가인 石田 沈周의 시에서 “매화도인은 공연히 탐만 있지만, 천 년 동안 사람을 속이지 않았네. 초서는 변광의 묘함을 증명하고, 산수화는 북원의 신묘함을 남겨주었네.”라고 읊은 시의 내용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⁴⁰⁾ 이외에 明 王世貞의 《弇州四部續稿》 권163의 〈墨蹟跋·國朝名賢遺墨〉 5권에서는 당시 南京禮部左侍郎贈尚書의 관직에까지 이르렀던 王瓚의 초서는 고한과 변광의 초서를 학습한 것이라 하였으니, 변광의 眞迹이 명대까지 전해졌고 몇몇 문인의 초서는 변광의 초서를 배워 풍격이 흡사하였던 듯하다.⁴¹⁾ 변광의 초서 진적이 비록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진적이 전해졌었던 명대까지는 후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唐末에 활동하여 명성을 날렸던 書僧 廣利大師 晷光의 서예와 변광의 서예를 평하거나 노래한 당대의 시가 및 당 이후 역대 문인들의 변광 서예에 대한 평가를 추출하여 분석해보았다. 당대에 초서승으로 명성을 날렸고 오늘날까지도 명성이 자자한 대표적인 승려로 懷素와 高閑[閑]

38) 《書史會要》〈補遺〉“吳鎮, 字仲珪, 嘉興人. 草學晷光. 亦善畫水墨山水.”

39) 《清河書畫舫》 권7下 “吳鎮仲珪, 書法晷光.”, “吳鎮字仲珪, 嘉興人. 草書學晷光.”, 《御定佩文齋書畫譜》 권39 “仲珪草書學晷光.” 등.

40) 沈周, 《石田集》, 〈題梅花和尚之塔〉 “梅花空有塔, 千載莫欺人. 草證晷光妙, 山遺北苑神.” 이 시는 청대 沈季友가 편찬한 《橋李詩繫》 권39에는 〈梅花道人墓〉라고 제목하고 있다.

41) 王世貞, 《弇州四部續稿》 권163, 〈墨蹟跋·國朝名賢遺墨〉 제5권 “南京禮部左侍郎贈尚書王文定公瓚, 送王父歸田一章, 其書似學高閑晷光.” 이 내용은 《御定佩文齋書畫譜》 권42, 《六藝之一錄》 권368 〈王瓚〉 조목에도 실려 있다.

을 들 수 있지만, 변광의 서예를 읊은 당대 문인들의 시는 회소 다음으로 많은 양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당대의 시가와 역대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변광은 시에도 뛰어나 옛 곡조의 시가 많았으며, 초서에 특히 뛰어나 당시 변광의 서예를 칭찬하며 노래한 문인들이 현증 시가를 지어 이 서예시를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변광 생애가 혼란했던 당나라 말과 겹쳐서 그의 시집과 변광 서예를 찬송한 시문집 및 그의 서예 진적은 현재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그의 시와 서예의 진면모를 파악하긴 어렵다. 하지만 《全唐詩》에 수록된 서승 변광의 서예를 읊고 있는 현전하는 시가 7수를 통해본 변광의 초서를 종합해보면, 초서승인 懷素와 高閑의 광초 풍격을 이어받아 글씨는 구속됨이 없고 자연스러웠으며, 표일하고 호방 장대하여 결코 초라하거나 궁상맞은 모습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변광 서예에 대한 당 이후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소나 고한과 달리 변광의 초서에 대해서 송 이후에 시문으로 칭송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역대의 여러 평자의 평을 종합해보면 변광의 초서는 이전의 승려 초서 대가인 智永, 懷素에는 미치지 못하고, 때로 高閑보다 못한 수준이거나 혹은 고한이나 亞栖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당대 초서승을 전체적으로 개관해보았을 때, 변광의 초서는 회소와 같은 최고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고한이나 아서와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빼어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고를 집필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긴 과제들, 예를 들면 변광이 창작한 시집과 당대 문인들이 변광 초서를 칭송하여 현증한 시집의 발굴, 제목만 남아 있고 원문은 전하지 않는 변광 초서 관련한 당대 문인들의 시문 탐색, 晝光과 廣利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고증, 貫休 혹은 司空圖의 시로 동시에 저록된 〈晝光大師草書歌〉시의 저자 고증, 그리고 당대 이후 서예 이론으로 정착된 ‘書禪合一’에 대한 연구 등등은 모두가 해결하기 쉽지 않거나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들이지만,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禹在鎬,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第77輯, 2018.
- 禹在鎬, 〈唐代 草書와 歌行體 草書歌의 상관성〉, 《中國語文學》 第79輯, 2018.
- 禹在鎬, 〈唐代 書僧의 書藝와 書藝詩〉, 《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2019.
- 禹在鎬, 〈唐代 書僧 高閑의 書藝와 역대의 평가〉, 《中國語文學》 第82輯, 2019.
- 莊子, 김창환 옮김, 《莊子·內篇》, 을유문화사, 2010.3.
- 《全唐詩》(上·下), 再版,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3.0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董誥 等編, 《全唐文》(全五冊), 上海古籍出版社, 1995, 3刷.
- 潘運告 主編, 《宋代書論》, 《元代書畫論》, 《明代書論》, 《清前期書論》, 《晚清書論》(中國書畫論叢書), 5版 등등, 湖北美術出版社, 2006.
- 計有功, 《唐詩記事》(全六冊), 王雲五 主編,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李靜月, 〈唐代書詩의 書法史料價值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田光烈, 《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82.3.
- 王伯敏 等 主編, 《書學集成》(全三冊), 河北美術出版社, 2002.6.
-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 贊寧 撰, 《宋高僧傳》(全二冊), 中華書局, 1987.8.
- 周小儒·張揚, 《中國歷代僧侶書法》, 山東畫報出版社, 2011.
-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 江蘇教育出版社 2014.6 4刷.

< Abstract >

In this paper, we extracted and analyzed the calligraphy works of Monk Calligrapher Bianguang(瞿光), who made a reputation by working in Late Tang Dynasty, and the poems of the time when he commented or sang the calligraphy of Bianguang and the evaluations of the past writers after Tang. Although Tang Dynasty achieved fame as Monk Calligrapher and Huaisu(懷素) and Gaoxian(高閑) are representative monks who still have a reputation today, the poems of contemporary writers who recited the calligraphy of Bianguang have been handed down in large quantities to this day after Huaisu.

As the life of Bianguang overlaps with the chaotic end of Late Tang Dynasty,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true face of his poetry and calligraphy, with his collection of poems and the collection of poems and calligraphic writings extolling the Bianguang calligraphy now leaving no trace until today. However, I summed up Bianguang's Cursive Style of Writing through the seven existing poems reciting the calligraphy of Monk Calligrapher Bianguang contained in *Quantangshi*(《全唐詩》). Successive to Monk Calligrapher Huaisu's styles, his calligraphy was natural without restraint, and it can be seen that he had never been shabby or paranoid because of his pliant and grandeur. This was also confirmed in the post Tang Dynasty assessments of Bianguang's calligraphy.

Key Words : 書僧(Monk Calligrapher), 瞿光(Bianguang), 廣利(Guangli),
書藝(Calligraphy), 書藝詩(The poems on Calligraphy),
草書(The Cursive Style of Writing)